

비혈연 골수이식에 관한 뉴스레터

통권 16호

발행일 : 2001.09.30

[기증자이야기]

나의 행복...

김 정 태

어느덧 수술한 지도 한 달이 흘렀다.

어제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들도 내게는 하나의 삶의 추억으로 자리매김 하려 한다.

....

어느 전철역 적십자 혈액원에서 골수기증회원으로 등록했던 일도 망각의 샘 저 편에 터를 잡은 올 봄... 요령(?)의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동료들의 말에 히죽 웃던 내게

“무슨 골수 #*\$2 --- ? 어디라고 하던데...!” “@_@ 누구지? 누구까?”

.....

며칠 후 코디네이터인 김은정씨의 전화를 통해 까맣게 잊고 있던 골수기증회원가입자인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 수술할 수 있냐는 물음에 “하쵸!”하고 답을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

‘어~ 내게도 이런 기회가?’ ^.#

여느 기증자와 같이 여러 검사와 자가채혈을 하였다. 수술 전날이 어머님 생신이였다. 가족에게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거리 만들지 않기 위해 출장 갔다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대전의 충남대병원으로 향했다. 날씨가 무더워선지 더위에 축 쳐진 나를 발견한다. 그런데 내가 있는 이곳 병동은 혈액종양 및 백혈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불만과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참 부끄럽다.

서울서 내려온 코디네이터 분들도 떠난 빈 병실에서 내게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환자복을 입은 나를 본다. 묘한 기분이다. 수술 전 간단한 혈액 검사와 수액(?)을 맞고 내일 있을 거사(@_@)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수술 당일 아침.. “수혜자분은 어떤 분일까요? 내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수술 시작합니다. 숨 크게 쉬세요.” “ zzzZZZ”!

“ 이봐요” 뺨을 두드리던 간호사의 얼굴을 본 순간 배고프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둔부의 뼈근함을 빼면 내가 수술 한 것 같지는 않고 며칠간 긴 잠을 잔후 배고픔에

지친 어린애가 되어버린 기분이다.

기분이 묘하다. 내가 누굴 사랑할 만큼 사람 됨됨이가 된 것도 아니고 도움을 주는 일도 드물었던 내게 그 동안의 일을 반성하라는 하나의 Event라고 생각되는 건 왜일까?

수술 전/후 대전까지 와서 걱정과 재미난 이야기와 웃음을 주셨던 두 분의 코디네이터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수술 후 나는 너무도 분에 넘치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지리산을 2박 3일 종주를 마친 나...

“어디선가 나와 같이 맑은 하늘을 보고 있을 당신을 생각하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당신, 환한 웃음을 먹고 행복 하십시오.”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만, 저의 골수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부디 저 보다 행복한 삶 사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환자 분들이 고통에 힘겨워 하는 이 초가를 사랑이라는 뜨거움이 주위 분들의 가슴 가슴에 넘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 골수를 주실 분 중에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디 인생에서 큰 행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끝으로 지금 이 시간도 병마와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일은 웃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빕니다. 사랑의 다리가 되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 짹짹 -

나의 아픔이 기쁨으로...

이 경 선

올 4월말 집에서 나오는 길에 골수은행협회에서 내 앞으로 온 소포를 보게 되었다. 군에서 단체로 헌혈할 때 골수기증 신청을 하면 하루를 쉴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고창들과 후임병 몇몇이 신청을 했던 것을 어렵듯이 기억 할 수 있었다.

사실 협회에서 전해온 소포를 개봉해 그 안에 있는 편지를 읽어보기 전까진 회원 관리차 보내진 것인줄 알았다. 소포의 소인 날짜는 4월초... 무려 한 달이나 지나서야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절하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던 내 자신을 나는 무척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일단 ‘김은정’이라는 이름의 코디네이터에게 전화를 해 보기로 했다. 다행히 김은정씨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기증 받는 사람이 8살 남자아이라는 것 외엔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같은 유전자가 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운이 좋은 사람은 같은 유전자 형태를 가진 사람이 여러명 된다는 말씀도 함께) 더불어 우리 아바

지게 말씀을 드렸다가 호되게 혼이 났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렇게 내 생애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에 별 망설임 없이 기증 동의를 했다.

며칠 후, 그 아이와 나와서 유전자가 맞는지 다시 확인 하는 검사를 했고, 정상이라는 결과에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검사를 ○○병원에서 받게 되었다.

아무 무리없이 7월 5일 입원을 했고, 수술은 익일(7월 6일) 오전 7시였다. 수술 당일 아침 5시30분에 링거액을 맞고 수술 준비를 하고 수술실에 시간 맞춰 올라갔다. 수술대에 올라간 후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정신을 잃게 되었다. 깨어보니 회복실 이었고, 간호사가 마취에서 깬 것을 확인차 내 이름과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사실 김은정씨가 수술한 사람들은 각각의 체질에 따라 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아프지 않다고 말 한다고 하길래 평소 건강했던 나는 별 아픔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 아팠다. 특히 지혈을 위해 상처 부위에 모래주머니를 대고 있는데 정말이지 짜증이 날 정도로 아팠다. 간간이 진통제도 맞고...

수술 날은 그렇게 잠만 잔 것 같다.

다음 날 나를 괴롭혔던 모래주머니를 떼어 냈고 아픔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우습게나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수술 한 후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다. 물론 아직도 부모님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지만 훗날 당신의 자식이 뜻있는 일을 했고, '잘했다' 하실거라 생각한다.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기증 받은 꼬마가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내가 지금 바라는 일 중의 하나다.

끝으로, 기증하는 것은 잠깐의 고통과 번거로움이 있지만 내 자신의 조그마한 희생으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환자에게나 또한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요즘은 내가 하는 일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것 같고 기증 받은 꼬마가 고맙다고 도와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사랑의 나눔을 기대합니다.

이 영 석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3일에 13세의 꼬마 어린이에게 골수 공여를 한 28살의 청년인 이영석이라고 하며 현재 해군 현역 대위입니다. 뭐 골수 기증은 군인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군인도 여러분과 같은 하나의 생명체이며 희생의 산물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골수기증에 서약한 때는 7년전 사관학교 때입니다. 그 당시 골수기증을 할 때에는 설

마 나에게 1/20000 이라는 일치될 확률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으로 기증에 동의했습니다. 깊게 생각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모두 다 같이 했으니깐요. 그러나 협회에서 전화가 오고 기증을 하느냐의 결정과정에서 누구나 고민하겠지만 가족과 곧 결혼할 약혼녀를 생각해 야 했고 아울러 튼튼한 몸이 재산이라는 군인에게 있어 수술의 결정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절대로 수술은 안된다고 했지만 곧 결혼할 약혼녀는 흔쾌히 다른 사람을 위해 고귀한 희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제 부인될 사람도 해군장교였거든요. 수술동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작은 사랑으로 갓 피어나는 꼬마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와 꿈을 심어준다면 짧은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공여에 거절을 하고 포기를 한다면 한 꼬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아직 채 피어나지 않은 예쁜 꽃을 그만 꺾어버리고 만다는 죄책감도 있었구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술이고 골반에서 채취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선뜻 허락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병원 내과 의사 및 병원에 계시는 친척들에게 문의한 결과 수술후의 빠른 회복 외에는 후유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수술과정에서도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은 극히 예외적이라는 말을 듣고 흔쾌히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를 하고 수술하는 날, 태어나서 처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병원에 가본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생소하기도 했지만 놀란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병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은 사회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심코 하던 헌혈이 여러 사람에게 귀중하게 쓰이고 한 생명을 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술시간이 다가오면서 수술전 간호사가 묻더군요. 무섭지 않냐고. 그러나 군대에서 훈련받던 때를 생각하면 그런거 있잖아요. 훈련받으러 가는 것이 두렵지 사실 훈련은 그리 힘들지 않고 훈련이 끝나면 상쾌하고 후련하잖아요. 사관학교에서 훈련받던 시절을 생각하며 수술실이 단순한 훈련장소로 느껴졌고 수술방에서 나오는 순간 피를 뿜았기 때문에 약간 어지러운 증세 외에는 마음속이 후련하더군요. 이제 수술이 끝나고 한 두달이 지나갑니다. 얼마전 꼬마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우리가 흔히 쓰는 타인에 대한 사랑의 실천 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한 꼬마가 나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나에게 설령 작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감수 해야 하고 나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설령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걸 내가 결정했기 때문이죠. 항상 모든걸 받기만 한 학창시절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이 무엇인가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술후 잘 마시던 술도 안마시게 되고 담배도 잘 안피우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걸리던 것이 술과 담배를 참 잘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 주셨고 이러한 기회로 꼬마와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울어 골수기증 과정에서 보여주신 협회 관계자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도 백혈병에 투병하며 공여자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에게는 건강한 여러분의 용기가 가장 큰 힘을 잘 알고 많은 분이 사랑으로 실천하시길 기대합니다.

황당하시죠?

박 성 도

2001년 3월 18일 내 손에는 이상한 편지가 놓여 있었다. 한국골수은행협회에서 온 그 편지의 내용은 더욱 황당한 것이었다. 골수기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우찌 나에게 이런 일이... 골수기증의 특징 중 하나는 골수기증을 신청한 후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릴 무렵 잊지 않고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이다. 나 역시 7년의 세월이 지나 나와 조건이 맞는 환자를 상봉(?)하게 되었다. 그것도 연락이 잘 안되어 마지막으로 보낸 확인 편지를 통해 이 만남은 이루어졌다. 생명은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었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의 느낌은 두려움과 설레임이었다. 수술경험이 없어 느끼는 두려움과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먼저 엄습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왠지 모를 편안함과 사람을 살릴수 있다는 설레임이 가슴 깊이 느껴졌다. 그래서 먼저 인터넷과 경험자들의 조언, 골수은행협회의 정기간행물인 ‘뉴스레터’ 그리고 코디네이터 김은정씨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골수기증의 절차와 부작용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후 내린 결론은 골수기증이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골수기증을 하게된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었다. 언젠가 TV에서 소아 백혈병 환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7살 정도 되는 여자 아이가 벌써 2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병실에서 가장 활달하고 명랑한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다. 하지만 내가 잊지 못하는 장면은 따로 있었다. 치료를 위해 마취없이 큰 바늘로 허리를 찌를 무렵 말없이 흐느끼던 엄마에게 한 그 아이의 말 “엄마 울지마. 나 안아파. 의사선생님이 꼭 낫게 해주신대. 엄마 울지마 나도 참잖아...’ 그날의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내가 골수기증을 하게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종합검진과 자가헌혈은 학기 중에 했지만 입원은 7월 2일에 하였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지만 대학 4학년이라 학기 중에 시간이 빠듯했고 환자도 가능하하기에.. ○○병원의 특실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어떤 기증자는 입원전에 잘먹고 가시고기도 읽고 가을동화도 보면서 준비했다는데 나는 케이블TV로 축구보고 신문보고 김은정씨가 사준 과일하고 음료수 먹으면서 내일을 준비했다. 어머니께서 휴가를 내시어 간호를 해주셨다.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다.

드디어 수술날, 보통 오전에 수술을 하지만 사정상 오후에 일정이 잡혔다. 나는 오히려 편

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전신마취, 묘한 설레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시간이 되어 수술실로 옮겨졌다. 옮겨질 때 보았던 병원 천장의 움직임이 아직도 신기하다. 오히려 어머니가 더 걱정을 하셔서 죄송했다. 얼마후 많이 듣던 간호사들의 과분한 칭찬과 함께 마취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황당함이란... “마취합니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잠이 들어 버렸다. 현대의학은 놀라웠다.

꼭 잔뜩한 느낌과 함께 옆에서 누군가 나를 깨웠다. 회복실이였다. 이렇게 수술은 예상보다 싱겁게 끝이났다. 특별히 아픈데는 없었고 3시간 정도 목이 켄켄해서 물을 자주 마셨고 상처를 잘 아물게 하기 위해 주로 누워서 잠을 잤다. 어머니도 나도 모두 후련해 하고 있었다. 6시간후에는 서서히 일어날 수 있었고 다음날도 병원에서 쉬후에 그 다음날 퇴원 할때는 힘차게 걸어서 나왔다. 그후 일주일 쯤 지나니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다.

골수기증을 결정하면서 뭔가 대단히 인상적인 경험을 기대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나의 기대는 작고 깊게 채워졌다. 이것은 이 일이 정말 소중한지만 간단한 일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병원에 가면 항상 느끼는 나의 건강에 대한 새삼스러운 감사. 하지만 이번 일의 감동은 역시 사람을 돕는 기쁨, 무엇보다도 땀가없이 사람을 살리는 기쁨이었다. 그 뿌듯함이란 누군가가 칭찬을 해주어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 내 자신 스스로가 격려하는 대견함이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였다. 내가 한 작고 소중한 일에 대한 과분한 칭찬과 비교되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 더불어 나의 기증으로 오히려 도전받고 힘을 내던 친구들의 반응도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먼저 감사하고 싶은 분은 환자 분이다. 아직 치료가 끝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꼭 완치되시길 기도한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 김은정씨와 협회분들 그리고 깔끔하게 수술을 해준 병원분들도 잊지 못할 것이다. 아들을 믿고 기증에 동의하시고 휴가까지 반납하시면서 간호해준 어머니 그리고 식구들과 여자친구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증을 고민하시는 분께 어느 수혜자의 글을 읽어 드리고 싶다.

“진심으로 자식의 생명을 구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하루하루 힘을 내고 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 넘치고 그래도 밤하늘을 향해 손을 모아 귀하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감사하다고 몇번이나 말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해를 향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합니다 라고.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김 형 일

얼마전 무더운 날씨를 뒤로 하고 땅거미가 지는 늦은 저녁시간에 접하게 되었던 비디오 한

편이 있었습니다.

무미건조한 나의 마음에 잔잔한 설레임을 그리고 고요한 평온을 가져다줄 무엇인가 필요하여서 “Good bye my friend”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동네 아이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하던 소년에게 커다란 산과 같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소년의 친구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비록 그 소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아주 먼 세상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의 친구로 인하여 육체의 아픔을 간직한 그 소년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이 세상을 접을 수가 있었습니다.

메말랐던 나의 눈가에 작은 이슬을 맺히게 한 그 영화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었고 내가 살아 있음을 그리고 아직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맘속에 심어놓은 사랑은 간직하고 있을 땐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부패하고 상하게 되지만 그 사랑을 나누어주었을 때 여러 곳으로 흘러나가 또 다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적시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나눔은 나누는 사람이나 그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씨앗이 되어서 함께 한 모든 이에게 말할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의 나무가 되지요.

그 나무가 성장하여 다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며 살면서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었던 것이 현혈이었습니다.

나에게 남아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되면 늘 현혈을 하게 되었고 현혈은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혈의 집에서 골수를 기증 받는다는 광고 문구를 보게 되었고 골수기증 희망자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곤 잊고 있었지요.

2년쯤이 지난 올 여름에 예쁜 목소리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누구인가 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2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만 같았던 저에게도 도움의 기회가 있다는 것에 너무도 반가웠고 지체할 여유도 없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큰 설레임이었기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는 나의 작은 바람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그 이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늘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나에겐 더 큰 행복이 자리 잡는다는 것을...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의 사랑을 받으신 분에게 빠른 사랑의 치유 받으시길 기도하며, 그 분도 힘들음에 지쳐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골수은행협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늘 설레임으로 가득찬 세상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우리들의 눈을 크게 뜨고 나의 두 손에
주어진 시간 속에 찌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럴당 보이실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랑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네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이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몸은 아프지만...

김 준 영

내가 백혈병에 대해 알게 된 건 5년쯤 전이다.
우연한 기회에 동아리에서 백혈병에 걸린 여자아이를 알게 되었다.
그 애를 위해 헌혈증을 모으고 치료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일일차집 등을 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병실을 드나들며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 둘씩 보게되었다. 치료의
어려움과 주위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백혈병이란 정말 무서운 병이구나'하는 생각을 했었
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골수이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건 2년쯤 전인가 그렇다.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
런지 골수기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리 어렵지 않게 생겼다. 나보다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주위분들로부터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들으시고는 허락을 해주셨다. 수술
은 생각보다 아팠다. 난 드라마에서 골수채취하는 식으로 주사를 허리에 꽂고 하는줄 알았
는데 전신마취후 골반에서 골수를 채취하는 것이었다.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퇴원해서 집에
올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통증은 한 2주일 정도 갔다. 3주쯤 지난 후부터는
평소와 다름없는 몸상태가 되어서 격렬한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몸은 조금 아프지만
어떤 한사람이 그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들에게도 속스러워 못한 얘기를 이렇게 쓰려니 기분이 묘하다.

소중한 한가지

박 승 집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고, 그 여러가지의 일 중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잃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닐
까요? 그래서 저는 골수기증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망설임과 생각을 해보았지만 저의 생각과 결심이 하나의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저의 망설임과 주저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움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매우 어렵다, 무섭다, 위험하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듯이 그러나 저는 지금 건강하고 생활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의 약속을 지켜서 매우 기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골수기증을 호소의 형식보다 홍보 및 캠페인의 형식으로 진행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기증자가 나올 것 같은 짧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요? 생명을 잃으면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요.

저도 이 일을 집식구와 상의를 하지 않고 바로 전날 이야기를 해서 집안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하였습니다. 만일 제가 무조건 꼬마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말로 설득을 했다면 아마 당신 아니면 안되느냐는 말로 끝까지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저의 좌우명을 말씀드릴까 해요. 저의 좌우명은 “사, 사, 사, 사”입니다. 뜻을 풀면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자 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하면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잃고 있는 이들에게 “사, 사, 사, 사”를 하면서 살아보세요. 정말 행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작은 사랑을 주어 생명을 얻은 알 수 없는 어린 꼬마 여자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저씨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기에 너도 생명의 소중함으로 남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아저씨의 바램이란다 7월의 어느날 너와 소중한 사랑을 나눈 아저씨가.

[수혜자이야기]

생명의 선물

수혜자 : Masayoshi Tominaga

기증자 분께

그 후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아무썩록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기를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지금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골수 이식 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기증자를 찾는 희망과 실망의 나날을 반복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과 마주하는 듯한 나날이었습니다. 본인의 정신과 육체의 괴로움은 물론, 가족들도 큰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귀하가 남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귀하가 젊은 남자 분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생판 모르는 남에게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고, 굉장한 용기를 갖고 협력해주신데 대해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며 거듭거듭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달리 예의를 갖출 길이 없네요.

귀하에게도 귀하를 깊이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귀하의 행동을 지켜 보아주셨는지.... 이해해 주신 가족 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남편과 웃는 얼굴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기적입니다. 귀하가 큰 사랑으로 베풀어주신 기적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편은 많은 어려움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귀하의 행동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귀하가 주신 '생명의 선물' 귀하의 큰 사랑과 용기에 본인은 물론 저희 가족, 부모형제, 일가친척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귀하를 한시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언제까지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외부 원고]

디지털시대와 정보격차

육군 대령 최광표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저명한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명저인 「미래의 충격(Future Shock, 1970)」,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1980)」, 그리고 「권력의 이동(Powershit, 1990)」 등을 약 10년 주기로 연속 출간하면서 정보혁명을 예견한 바 있다. 이러한 정보혁명을 가속화시키는 디지털기술의 등장은 지금까지 인간이 익숙해져 있고 보편적으로 살아가던 기본적 생활방식에 대하여 충격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써 인간은 가상공간이라는 무한한 인공적 우주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교류 및 활동이 가능하며, 빛의 속도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시간대가 밤과 낮의 구분 없이 24시간 동안 열려 있는 환경에서 일과 오락을 즐길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인간생활 주변의 문명적 도구들이 디지털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의하여 융합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눈앞의 현실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아날로그시대(analog age)에서 디지털시대(digital age)로의 전환은 다른 변화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도전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탈락과 소멸이라는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시대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해 가상공간속의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자와 접속할 수 없는 자로 구분될 것이다. 또한 이들 집단간의 정보 편중은 정보부자(富者)와 정보빈자(貧者)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들 사이의 누적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경제적 소득격차로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식자(識者)들간에는 정보격차가 디지털시대에서 주목해야할 새로운 화두(話頭)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연령·소득·직업·신체적 조건 등의 제약 때문에 가상공간에 접속할 능력을 못 갖추었거나 접속할 기회를 제한 받고 있는 정보취약집단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아직도 인터넷 접속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이 실재하는 물리적 공간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50대 이상은 4.9%, 중졸이하 학력자는 1.9%, 농어민은 7.3%, 그리고 장애인은 6.9%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많은 정보취약집단의 지속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취약집단의 생활기반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정보활용 집단과 미활용 집단간에 정보격차로 인한 단절 및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늘날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조직·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아날로그시대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새로운 능력인 정보접속 능력, 정보해독 능력, 정보가공 능력, 정보처리 능력, 그리고 정보활용 능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능력을 통틀어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디지털화된 정보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로 전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가상공간에서 자신이 편집·가공한 정보를 또 다른 네티즌(netizen)과 더불어 공개 및 공유함으로써 정보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서 요구되는 신지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의 부단한 노력, 뜨거운 열정, 그리고 끈질긴 집념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디지털화된 신지식인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기 보다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